

옥탑방 살이 이어 휠체어 대중교통 체험

## 박원순 “이번엔 장애인 이동권 보장문제 해결한다”

서울시-교통公, 체험관련 협의  
지하철 1~8호선 277개 역사 중  
75곳만 리프트·엘리베이터 설치

박원순 서울시장의 휠체어 대중교통 체험과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5일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서울교통공사 기획처에서 박원순 시장의 휠체어 대중교통 체험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지난 2일 서울청년의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의원 질의에 하루 동안 휠체어를 타고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체험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박 시장은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한 달 살이에 이어 두 번째 체험 행정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를 살펴보게 됐다.

박 시장이 휠체어 대중교통 체험을 통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1·5호선 신길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던 뇌병변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 해결에 나선 가운데 그가 서울교통공사와 장애인 인권단체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7월 장애인 권리단체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를 업무·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장차연은 지난 6월부터 지하철 1·

5호선 신길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던 뇌병변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장차연 공동대표와 활동가 등 12명을 업무방해와 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린 서울장차연 사무국장은 “지하철 승하차 투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은 인정한다”며 “시민분들은 하루에 한 번 길어야 30분 겪는 불편함이지만, 저희는 1년 365일, 10년, 20년 겪어온 이동권 문제이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했다.

문 사무국장은 “교통공사는 우리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그들은 직무유기 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장애인도 시민이다. 장애인 리프트가 시민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면 이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1~8호선 277개역 중 장애인 리프트 혹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75개역, 161개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장애인 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며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운 역사는 별도의 통로를 확보한 후 장애인리프트를 철거, 엘

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승강장과 열차 간 바퀴 빼짐 방지를 위한 자동식 안전발판 설치 ▲점자블록 미설치 지침 정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 보조서비스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문 사무국장은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를 파악하고자 휠체어 체험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의도이다”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박 시장이 지난 2015년 이동권 선언을 통해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저상버스 100% 도입, 무장애 공간 마련 등을 약속했는데 이 중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광화문역에 2017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경찰청 손잡고 위기가정 지원 앞장

###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업무협약

서울시는 5일 오후 시청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위기가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 역량을 결합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 예방경찰관’ 제도,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결합해 자치구별로 위기가정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센터는 위기가정의 초기상담, 통합적 사례관리, 시설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양 기관은 10개 자치구에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내년에 전 자치구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서별로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 신규 채용되는 상담사 4~9명이 위기가정을 지원한다.

경찰에 위기가정 신고가 들어오면 학대예방경찰관이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센터에 공유한다. 상담사는 위기가정의 실

태를 파악하고, 사례관리사가 이를 토대로 가정을 방문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안전망 구축 협약으로 그동안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통합사례관리’만으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찾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보완, 복지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홀라후프 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마을주간 기념행사에서 공동체 놀이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리 옷 ‘한복’ 제대로 알고 입어요”

종로구, 11일 ‘한복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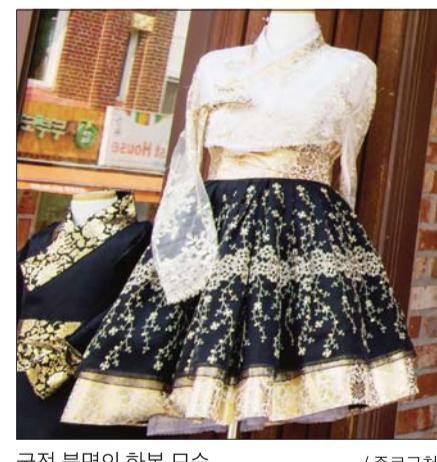
서울 종로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우리 옷 제대로 입기 한복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과도하게 변형되고 왜곡된 국적 불명의 한복 대여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한복을 입고 궁궐과 관광지를 찾는 젊은층과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 화려한 금박, 레이스, 리본으로 장식된 한복은 전통의복과 거리가 멀어 잘못된 문화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복토론회에는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소재 궁궐 관계자, 한복 대여업체, 한복 전문가, 지역 주민 등 20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는 종로구의 한복 활성화 정책 소개,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궁미루 한복 여행자가 ‘진짜 한복? 기자 한복?’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이어 한은주로 이스컨설팅 이사의 한복 대여업체 중심 현황분석 연구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국적 불명의 한복 모습.

/종로구청

## 마을활동가들 성과 공유

### 마포, 내일 ‘마을자치포럼’

서울 마포구는 오는 7일 케이터틀에서 주민자치 활동가들을 위한 네트워크 축제 ‘마포 마을자치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마을자치포럼은 마을공동체 복원과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구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행사에는 마포구청장, 마을주민, 마을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여해 마을자치 관련 의견을 공유한다.

포럼에서 주민자치사업단과 마을활동가들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모색한다. 구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을사업과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서강동에서 진행한 ‘온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통해 동네를 평생학습 마을로 만든 공을 인정받아 주민자치박람회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어

일자리

현황

등을

진단

할

예정

이다.

패널 토크 1부는 이금룡 상명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는다. ‘시니어가 미래다-공공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 전략과 성과’를 주제로 고용노동부, 서울시, 자치구 일자리 지원정책과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 모델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시니어가 자원이다-민간의 일자리 창출 실험과 도전’을 주제로 시니어 창직(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활동) 국내외 사례, 미래 시니어 직업, 민간부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서비스 등을 논의한다.

/김현정 기자

## 행복한 마을 기여 7명에 ‘서울 마을상’

서울시는 2018년 서울 마을주간을 맞아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기여한 연예덕(60)씨를 포함, 시민 7명에게 ‘서울특별시 마을상’을 수여한다고 5일 밝혔다.

마을상 수상자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파급력, 지속성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마을상 수여 대상자는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이나 생활권이 서울에 있는 시민으로 비영리법인, 자치구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후보자는 서울시 감사담당관 조사와 서울시 공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결정된다.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 주민협의회’ 회장 연제덕씨는 광희동 멀티골목의 풍선 간판 자율 정비, 광희 실크로드 벽화 조성 사업 활동 등을 높이 평가받아 상을 받게 됐다.

3대가 마을계획단으로 활동 중인 안문희(43)씨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 계획 사업을 시작으로 가족, 지인, 지역사회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활동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